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25일 문예전당서 선포식
365 바다지킴이 운영 등
깨끗한 바다 지키기 결의

완도군이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완도군은 오는 25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청정바다 수도임을 전국에 알리는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군은 이번 선포식에서 청정바다와 건강의 섬 완도 이미지를 살린 '건강해(海)요, 깨끗해(海)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라는 슬로건(포스터)을 내걸었다.

바다면적(4939.6km²)이 육지면적의 12.6배에 달하는 완도군은 265개의 크



고 작은 섬들이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며, 다도해의 경관 또한 수려해 대한민국의 관광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특히 다양한 수산자원과 대규모 어업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완도군은 전국 전복 생산량(81%)을 위시해 다시마 70%, 미역 46%, 매생이 40% 등 우리나라 수산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군은 청정바다 수도 선포식을 시작

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바다의 중요성과 그 중심이 완도임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청정바다 선포 후 지속적으로 깨끗한 바다 보전을 위한 '365 바다지킴이 운영'과 함께 3C 운동(Clean=깨끗함, Conservation=보전·보호, Commodification=상품화)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1회성 선포식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의 날과 바다 식목일, 전복데이(Day), 미역데이 등 연중 국가 기념일 및 완도군 특산물 '데이 마케팅'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

달팽이 기자단 모집
캘리그래피 공모전

완도군이 '2015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를 앞두고 축제 홍보를 담당하는 달팽이 기자단을 13일까지 모집한다.

'달팽이 기자단'은 올해 축제 중 관광객의 시선으로 바라 본 청산도 슬로길과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기자단은 축제기간 동안 일정기간을 청산도에 머물면서 축제를 즐기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기자단에게는 명예기자 위촉장과 달팽이 기자단 기자증이 수여되며, 활동기간 동안 체재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슬로시티 청산도'와 '청산도 슬로길' 2개의 주제를 가지고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15일까지 공모한다.

공모전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산도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캘리디자인을 모집한다. 공모전 수상작에는 상금과 상장이 전달되며, 수상작은 향후 슬로시티 청산도를 대표하는 캘리그래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자단과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슬로시티 청산도 홈페이지(www.cheongsando.or.kr)와 청산도 공식 블로그(www.slowcitycheongsando.c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2015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슬로 시티' 청산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장보고 대사 기리는 당제

완도군 완도를 장좌마을주민들이 정월대보름인 지난 5일 장도 청해진유적지 일원에서 '해신(海神) 장보고대사를 기리는 당제(전남도 무형문화제 제28호)를 지내고 있다. 주민들은 바다를 지키고 마을의 번영을 도모해준 장보고 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후손들이 자자손손 번영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수백 년째 당제를 올리고 있다. <완도군 제공>

해남군 42억 들여 농·수산물 유통기반 확충

농산물 저장고 125동·수산물 가공시설 14개소 건립 지원

해남군이 올해 농·수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에 42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출하시기 조절로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산지 생산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군은 7억5000만원을 들여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10㎡ 규모) 125동을 지원한다. 농가에서 관리하기 적절한 크기에 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난해 147동을 지원한 바 있다.

고구마 작업장도 1억5000만원을 들여 2개소에 165㎡ 규모의 작업장을 시설한다. 이를 활용해 작목반이 공동선별 작업을 통해 고구마의 상품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로도 소형 저온저장시설 27동,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14개소가 지원된다.

산지가공시설 중 12억원을 들여 시설되는 친환경 김 가공시설은 친환경 김 냉동 저장 시설과 건조시설을 지원, 관내 생산되는 친환경 물김이 마른김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라인을 갖추게 된다.

군은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의 하나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히트펌프 시설을 지원한다.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김 가공에 따른 전기요금을 70%가량 절감할 수 있어 어가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유통기반시설 확충은 농·수산물의 저온 저장으로 수급조절과 함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채소와 화훼, 과수 등 재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산 배추 120t 대만 수출길 오른다

양배추 400t도 수출 계약

진도산 배추가 해외 수출로 활로를 모색한다.

진도군은 "진도산 겨울배추 120여t(6600여만원)을 대만으로 수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겨울배추 20t이 부산항에서 대만으로 수출되며, 나머지 100t은 이달 말까지 수출된다.

또 2015년산 양배추 400여t도 대만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최남단 청정지역에 자리한 진도지역은 한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는 온난한 기후로, 겨울 대파와 배추, 양배추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대만과 일본에 3600t의 배추와 양배추를 수출한데 이어 2010년에 대만과 일본에 1600t을 수출한 바 있다.

군은 채소류 가격 하락과 과잉 생산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해외수



진도산 겨울배추가 이달말까지 대만으로 120여t 수출된다. 선적을 위해 컨테이너에 진도 배추를 적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출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안전 농산물로 감동 주는 '진도 행복농업' 실현을 통한 4개년

계획을 수립, 철저한 유기농업 육성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 농업소득 5000억 원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ark@

해남군,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공모 선정 3년간 매년 30억 사업비 확보

해남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5 관광두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해남군에 3년 동안 매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진단 및 지역특화 관광사업모델 개발, 두레PD 교육, 홍보마케팅 등을 펼치면서 관광두레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남 관광두레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어갈 관광두레PD는 땅끝 문화예술단 이정아 대표와 이기문 회원이다. 이들은 '길

의 끝, 희망의 시작 해남'을 주제로 다양한 관광사업을 구상해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공모사업에 기획해 제출한 '길의 끝, 희망의 시작 해남'에는 ▲해남 육(肉)공예를 체험활동과 연계한 '속골 체험관광' ▲해남이 낳은 대표적인 식인들의 자취를 느껴보는 '시 읍의 여행' ▲땅끝마을에서 잡히는 멸치를 먹거리 관광으로 연계한 '죽기 전에 먹어야 할 멸치국수' ▲여행자 그룹을 만들어 트럭을

타고 해남을 여행하는 방식의 '트럭킹 해남여행' 등이 발표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관광두레 사업이 지역주민이 주도적,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숙박, 음식, 여행, 특산물 등 관광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인 만큼, 해남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상무 Biz Tow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제과점 계약완료 편의점, 보세외류 임차예정	잔여 231㎡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타워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062)384-5551

비즈니스호텔 W

광주 상륙!!

(구. 백운동 국제관광호텔)

남구청이전 완료
광주제2지하철순환선(백운역) 확정
백운고가로로 철거후 지하화 확정
나주혁신도시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0대 확보
백운광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투자까지 1순위 지역

8층 (1209㎡)	중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7층 (1209㎡)	개인병원, 의원, 스카이라운지
6층 (1209㎡)	비즈니스 호텔
5층 (1209㎡)	비즈니스 호텔
4층 (1209㎡)	비즈니스 호텔
3층 (1209㎡)	비즈니스 호텔
2층 (1209㎡)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2509㎡)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및치질, 한의원, 판매시설, 침차전문점
지하1층 (2708㎡)	스포츠및사시, 유희/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200㎡)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콜라텍

국제비즈니스호텔 W

(구. 백운동 국제관광호텔)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21세기 산업개발 (임대문의) 010-2112-3232